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http://www.motie.go.kr					
2019년 02월 13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02. 12.(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9. 02. 12.(화)		담당부서	국제표준과	
담당과장	한상미 과장(043-870-5350)		담당자	반명진 사무관(043-870-5354)	

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적극 지원한다

- 국가기술표준원, 「2019년도 국제표준활동 지원사업」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고,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신규 설립 및 임원 수임 등을 하기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이들 기업이 세계시장 진출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 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의 전문가 17명을 포함해 산업계에서 36명을 선정해 최신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표준화 활동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금년도 개최되는 ISO/IEC 등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회의 참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지원 대상은 수요조사('18.12.20.~'19.1.10.)를 통해 산업계 36명(28.6%), 연구계 34명(27.0%), 학계 23명(18.3%), 국제표준협력 29명(23.%) 등 126명 선정·구성

□ 국가기술표준원은 ▲민간 표준 전문가의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국제표준화 회의 개최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의장·간사 활동 지원 등을 포함한 「2019년도 국제표준활동 지원계획」을 수립해 12일 발표했다.

□ 동 계획에 따라 올해 국내 민간 전문가들이 한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국제표준화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연구계, 학계 등에서 126명을 선정해 국제회의 참가를 위한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원한다.

- 또한, ISO/IEC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 30여개의 국제표준화 회의를 국내에 유치해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가 제안한 국제표준에 대해 회원국의 협력과 지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 특히, ISO와 IEC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의장, 간사, 컨비너 등 임원 수임**을 지원하고 **기술위원회 참가**(분과위원회, 작업반 포함) 및 **네트워크 구축 활동** 등에도 적극 참여시킬 예정이다.

* '18년말 현재 ISO/IEC 기술위원회 국내 임원 활동자는 207명임

- 그리고, 최근 기술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ISO/IEC 등의 공적표준화기구뿐만 아니라, IEEE, ASTM 등 **사실상 표준화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발족하고, 참가 및 국내 회의 개최를 지원하는 등 **사실상 표준화기구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최신 기술과 표준화 동향**을 신속히 공유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들의 활동 결과를 「국제표준종합정보시스템(www.i-standard.kr)」에 등록하고, 임원 수임자 모임인 「**국제표준리더스클럽**」도 주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해 2023년까지 우리 기술 표준 300종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산업계를 비롯한 민간 전문가들이 국제표준화 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 원장은 금번 계획을 통해 “ISO/IEC와 사실상 표준화기구에서의 임원 수임을 확대하여 우리나라 위상을 크게 제고하고, 향후 상임이사국 진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국제표준활동지원사업」 개요 및 그간 활동성과

□ 사업개요

- (목적) 국내기술의 국제표준화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무역기술장벽(TBT)을 해소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 주도권 확보

○ (사업내용)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및 표준협력 지원	▶	국제표준화회의에 전문가 출장을 지원하여 국내 산·학·연 의견을 반영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보
국제표준화회의 국내개최 지원	▶	국제표준화회의 국내개최 지원으로 국내 관련 기업 및 전문가의 참여 독려 및 국제위상 제고
국내 의장·간사 국제활동 지원	▶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임원을 수임하고 있는 국내 전문가의 표준 활동을 지원하여 우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국제표준 중요성)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제표준이 가장 유용한 도구이며, 우리산업 전반의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

- 국제표준화 되지 않으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더라도 세계시장 진출이 어렵고 개발기술의 사장으로 막대한 비용의 손실 초래

* 국제표준은 회원국간 투표(1국 1투표권)로 결정되며, 제안에서 채택까지 장시간(3년~5년) 소요되므로 국내 산업계, 주요 국가(기구)와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

□ 그간 활동성과

- ISO/IEC 기술위원회(TC/SC) 가입현황('17년 말)

- 기술위원회 952개 중 698개(73.3%)에 정회원(P멤버)으로 활동

구분	기술위원회 수			우리나라 가입									P 멤버 가입율
				P 멤버			O 멤버			계			
	계	TC	SC	계	TC	SC	계	TC	SC	계	TC	SC	
ISO	748	243	505	559	180	379	165	56	109	724	236	488	74.7%
IEC	204	104	100	139	75	64	34	23	11	173	98	75	68.1%
합계	952	347	605	698	255	443	199	79	120	897	334	563	73.3%

* P(participant)멤버 : 투표권 보유회원, O(observer)멤버 : 참관회원, 회의 참석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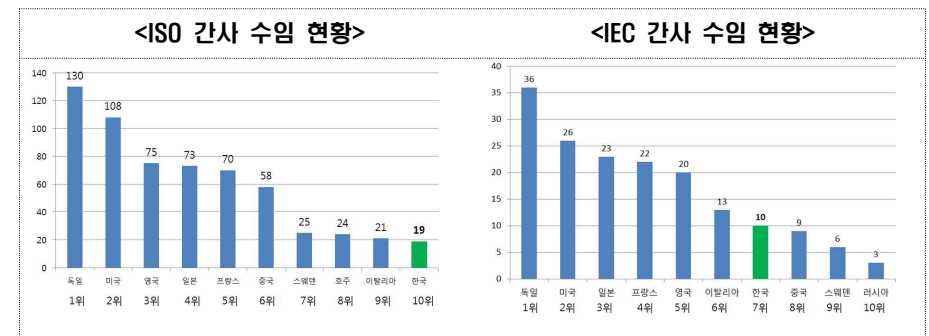
- ISO/IEC 기술위원회 국제간사 및 의장 수임현황('18년 말)

구분(명)	국제의장	국제간사	컨비너	계
ISO	14	21	121	156
IEC	4	8	39	51
계	18	29	160	207

- 국제표준 신규제안 연도별 현황

구분(건)	'11	'12	'13	'14	'15	'16	'17	'18
ISO제안	42	43	39	40	44	52	71	68
IEC제안	18	15	16	12	21	18	14	13
제안실적	60	58	55	52	65	70	85	81
누적합계	450	508	563	615	680	750	835	916

- 간사국 수임 순위 : ISO 10위, IEC 7위 ('18년 기준 해당기구 집계순)



- IEC에서 국제표준 제안 및 전문가 활동 참여 ('17.7~'18.6, 1년간)

- NP(신규표준)제안 3위, 전문가 참여 5위로 IEC에서 활동 활발

